≪六祖大師法寶壇經≫의 구결 연구*

남경란**

요약

이 글은 여말선초까지 간행된 구결 자료 가운데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바 없는 ≪단경≫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형태적인 측면을 검토해 본 결과 이본들의 구결 기입 순서는 '영남대 (가)본', '영남대 (나)본'과 '1479년본', '1496년본', '1574년본' 순으로 추정된다.

또 자료의 내용적인 측면을 ≪단경≫ 언해본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문자표의 8번 'ᄫᅳ'와 9번 'ᄀᆞ', 15번 'ᄇᆞ'가 동일한 음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으며, 11번 'ᄋᆞ'와 37번 'ᄭᅴ', 17번의 'ㅣ'와 22번의 'ᄆᆞᆯ'과 30번의 'ᄉᆞ' 및 31번의 'ᄉᆞᆷ'가 동일한 음에 대응됨을 알았다. 그리고 56번의 'ᄒᆞᆫ'와 57번의 'ᄑᆞ', 58번의 'ᄒᆞ' 및 59번의 'ᄒᆞᆨ'도, 60번 'ᄒᆞ', 61번 'ᄉᆞᆷ' 및 62번 'ᄉᆞᆫ'도, 81번 '위', 82번 'ᄒᆞᆷ', 83번 'ᄂᆞᆺ'도 언해본과 비교해 보면 모두 동일한 음'에 대응될 수 있음을 알았다. 둘째, 28번 'ᄭᅡ'와 35번 'ᄉᆞ', 44번 'ᄀᆞ', 90번 'ᄐᆞ', 91번 'ᄒᆞ', 97번 'ᄉᆞ' 등은 '영남대 (가)본'에서만 사용되고, 72번의 'ᄋᆞ', 89번의 'ᄠᅳᆮ', 94번의 'ᄇᆞᆯ' 등은 '영남대 (나)본'에서만, 또 10번의 'ᄉᆞᆯ', 25번 'ᄆᆞᆯ', 33번 'ᄉᆞᆫ', 43번 'ᄆᆞᆯ', 75번 'ᄀᆞᆺ', 96번 'ᄒᆞᆫ'

* 이 글은 지난 2005년 8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손질한 것이다. 도움 말씀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전문연구교수.

는 '1574년본'에만 사용됨을 알았다. 셋째, 고려시대 간행본인 '영남대 (가)본'은 결합유형 총 388개이다. 그 가운데 특히 'ㅿ(02ㄴ1), ㅿㅁ丶(08ㄱ7), ㅿㄱ丶(57ㄱ6), ㅿㅅㅿ(08ㄱ6), ㅿㅌㅁ(51ㄱ10), ㅁ丶(08ㄱ10)(08ㄱ8)(08ㄴ4), ㄴㅅㅣ士丁(36ㄱ5), ㅅㅿㅌㅣ(52ㄱ5), ㅅㅁㄱㅁ(43ㄱ2), ㅅㄷㅅㅂㅂ(15ㄱ1), ㅅㄷㅅㅐ(34ㄱ10), ㅅ十(05ㄴ4)' 등의 쓰임을 눈여겨볼 만하다.

*핵심어: ≪육조대사법보단경≫, 음독구결, 고려본, 문자 체계, 결합유형

1. 서론

이 글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간행된 입겾[口訣][1] 자료 가운데,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바 없는 ≪六祖大師法寶壇經≫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자료의 이본들을 소개하고 이들 이본에 나타나는 문자 체계와 形態書誌 및 구결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2]

≪六祖大師法寶壇經≫은 唐나라 慧能[3]의 일대기를 기록한 불교 경전으로 上·下, 혹은 上·中·下卷으로 되어 있다. 이 경전은 ≪六祖法寶壇經≫ 또는 ≪法寶壇經≫, 혹은 줄여서 ≪壇經≫이라고도 부른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六祖大師法寶壇經≫(이하 단경)은 크게 3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국에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간행된 ≪단경≫ 가운

1) 이 글에서는 구결이라 칭하기로 한다.

2) 현존하는 고려부터 조선까지의 음독 구결자료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南明泉和尙頌證道歌≫, ≪永嘉眞覺禪師證道歌≫, ≪天台四敎儀≫, ≪梵網經菩薩戒≫,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禪宗永嘉集≫,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金剛般若波羅密經≫, ≪佛說四十二章經≫, ≪法華經≫ 등의 불경 자료와 ≪警民編≫, ≪孟子諺解≫, ≪小學≫, ≪詩傳正文≫, ≪書傳正文≫ 등의 유경 자료들을 들 수 있다.

3) 혜능은 중국 불교의 한 종파인 禪宗의 제6대조이다.

데 음독 구결이 달린 이본 5종이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간행된 ≪단경≫ 가운데 일본 구결이 달린 이본 2종이며, 나머지 하나는 조선 연산군(燕山君) 때인 1496년에 간행된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에 달린 한글 구결 1종이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간행된 ≪단경≫의 이본 5종은 고려말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 1종과 조선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1종, 성화(成化) 15년(1479)에 병풍암에서 간행된 1종, 홍치(弘治) 9년(1496)에 옥천사(玉泉寺)에서 간행된 1종, 그리고 만력(萬曆) 2년(1574)에 전라도 광제원(廣濟院)에서 중간된 1종이다. 또 일본에서 간행된 ≪단경≫ 가운데 일본 구결이 달린 이본 2종은 명치(明治) 17년(1887)에 山田大應이 편집한 상·하권으로 이루어진 1종과 하권만 있는 1종이 그것이다.

이 글의 주된 대상을 여러 가지 구결 자료 가운데 ≪단경≫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들 이본이 학계에 발표된 바가 없을[4] 뿐만 아니라 이본들이 많아[5] 정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자료가 고려 말기에서 조선 말기까지 걸쳐 있어, 구결의 문자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통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자료는 1496년에 간행된 한글 언해본까지 있어 음독 구결과 한글 구결과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간행된 구결 자료 가운데,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바 없는 ≪단경≫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자료의 이본 8종을 소개하고, 이들 이본에 나타나는 문자 체계와 형태서지 및 구결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4) 이들 이본 가운데 1496년에 간행된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만 학계에 소개되었고 나머지는 소개된 바 없다.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에 대해서는 김동소(1999), 남권희(199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5) 고려부터 조선까지의 음독 구결자료 가운데 특히 이본이 많은 것으로는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11종), ≪梵網經菩薩戒≫(5종), ≪佛說四十二章經≫(5종), ≪妙法蓮華經≫(3종) 등을 들 수 있다.

2. 형태서지

2.1. 嶺南大 (가)본

이 판본의 서명은 '法寶壇經'이고 내제는 '六祖大師法寶壇經'이다. 이 책은 원문이 1冊 63張[6], 四周雙邊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다.

책의 크기는 22.7×15.0cm이고, 半匡은 內廓이 18.0×12.9cm이다. 版心은 黑魚尾가 上下向으로 있고, 版心題는 '壇'이다. 원문은 無界 10行이고 글자 數는 大槪 18字로 되어 있다.

본문의 체제는 略序, 悟法傳衣第一, 釋功德淨土第二, 定慧一體第三,, 敎授坐禪第四, 傳香懺悔第五, 叅請機緣第六, 南頓北漸第七, 唐朝徵詔第八, 法門對示第九, 付囑流通第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말의 간기는 낙장이다.

사용된 구결 자형은 '可, 去, 去, 口, 古, 丁, 乃, 又, 卜, 匕, 匸, 丨, 大, 力, 氐, 丁, 刀, 斗, 入, 土, 厶, 乚, 丶, 亠, 灬, 刂, 广, 久, 尸, 七, 叱, 彳, 金, 西, 亢, 立, 尸, 小, 亖, 士, 白, 犭, 尸, 才, 亠, 午, 冫, 乀, 土, 丿, 丂, 丷, 十'의 53개이고, 결합 유형은 총 388개이다.

이 책은 형태 서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고려말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구결도 고려시대에 기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2.2. 嶺南大 (나)본

이 판본의 서명은 '六祖法寶壇經'이고 내제는 '六祖法寶壇經(序)'이다. 이 책은 영남대학교 동빈문고(東彬文庫) 소장으로 원문이 1책 67장, 四周單邊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다.

판심은 흑어미가 上下內向으로 있고, 판심제는 '壇'이다. 원문은 무

6) 63장 이하의 발문(跋文)은 낙장이다.

계 10행이고 글자 수는 대개 18자로 되어 있다.

본문의 체제는 六祖大師法寶壇經序(德異撰), 略序, 悟法傳衣第一, 釋功德淨土第二, 定慧一體第三, 敎授坐禪第四, 傳香懺悔第五, 叅請機緣第六, 南頓北漸第七, 唐朝徵詔第八, 法門對示第九, 付囑流通第十, 跋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문은 낙장된 부분이 있다.

이 책은 '嶺南大 (가)본'의 번각(飜刻)으로 보이며 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된 구결 자형은 '可, 去, 口, 人, 尹, 乃, 又, 卜, 了, 匕, 匕, 丁, 尸, 丨, 大, 氐, 刀, 未, 丁, 入, 土, 厶, 丶, 罒, 尸[러], 乙, 万, 久, 亠, 勿, 卫, 氵, 全, 一, 尸[소], 小, 二, 士, 七, 叱, 阿, 我, 冫, 厓, 才, 十, 午, 位, 𠫓, 之, 他, 只, 丿, 勹, 艹, 屎, 丷, 力, 加, 月, 刂, 乀'의 62개이다.

2.3. 1479년 간행본

이 판본의 서명은 '六祖壇經'이고 내제는 '六祖法寶壇經(序)'이다. 이 冊은 원문이 1책 68장, 四周單邊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다.

책의 크기는 略 24.5×20.6cm이고, 반광은 內廓이 18.9×15.1cm이다. 판심은 複合花紋魚尾가 上下內向으로 있고, 판심제는 '壇'이다. 원문은 무계 10행이고 글자 수는 17자로 되어 있다.

본문의 체제는 六祖大師法寶壇經序(德異撰), 略序, 悟法傳衣第一, 釋功德淨土第二, 定慧一體第三, 敎授坐禪第四, 傳香懺悔第五, 叅請機緣第六, 南頓北漸第七, 唐朝徵詔第八, 法門對示第九, 付囑流通第十, 刊記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된 구결 자형은 '可, 去, 口, 尹, 乃, 又, 卜, 了, 匕, 尼, 匕, 丁, 尸, 尸, 丨, 夕, 大, 氐, 丁, 刀, 土, 入, 厶, 丶, し, 万, 久, 亠, 勿, 卫, 巴, 氵, 亽, 一, 尸[러], 小, 二, 氏, 士, 七, 阿, 冫, 厓, 才, 午, 𠫓, 之, 丿, 勹, 艹, 丷, 力, 月, 刂, 乀, 尸'의 56개이다.

이 책은 간기(成化十五年己亥五月日白雲山屛風庵開)를 참조해 볼 때 1479년 白雲山 屛風庵에서 改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4. 1496년 언해본

이 판본의 서명은 '壇經'이고 내제는 '六祖大師法寶壇經'이다. 이 책은 학계에서 흔히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라 불리며 1496년 5월에 왕실(王室)에서 木活字로 만들어졌다.

현전하는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는 상·중·하권이며, 이 가운데 하권은 1551년의 간기(嘉靖三十年辛亥暮春日全州府地淸溪山圓岩寺開版)가 있어 그 인출(印出) 시기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2.5. 1496년 간행본

이 판본의 서명은 '六祖大師法寶壇經'이고 내제도 '六祖大師法寶壇經'이다. 이 책은 원문이 1책 77장, 四周單邊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다.

책의 크기는 약 24.5×15.0cm이고, 반광은 내곽이 16.2×12.0cm이다. 판심은 大黑口가 있고 흑어미가 상하내향, 판심제는 '壇'이다. 원문은 무계 9행 17자로 되어 있다.

본문의 체제는 六祖大師法寶壇經序(德異撰), 略序, 悟法傳衣第一, 釋功德淨土第二, 定慧一體第三, 敎授坐禪第四, 傳香懺悔第五, 叅請機緣第六, 南頓北漸第七, 唐朝徵詔第八, 法門對示第九, 付囑流通第十, 跋(南翁;延祐丙辰(1316)), 간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말의 간기는 낙장이다.

사용된 구결 자형은 '可, 去, 口, 乃, 又, 卜, 匕, 匕, 丁, 尸, 尸, 朩[과], 丨, 大, 底, 丁, 刀, 土, 入, 厶, 丶, 乚, 万, 久, 广, 未, 氵, 亻, 一, 小, 所, 二, 士, 西, 七, 氵, 才, 亠, 午, 爲[위], 亏, 其, 之, 丿, 亡, 亏, 丷,

力, 月, 刂, 乀, 尸'의 52개이다.

이 책은 간기(弘治九年五月日 慶尙道居昌土玉泉寺開板)를 참조해 볼 때 1496년 경상북도 거창군의 옥천사(玉泉寺)에서 개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6. 1574년 간행본

이 판본의 서명은 '壇經'이고 내제는 '六祖大師法寶壇經(序)'이다. 이 책은 원문이 1책 80장, 四周單邊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다.

책의 크기는 약 23.3×15.0cm이고, 반광은 내곽이 15.5×12.1cm이다. 판심은 흑어미가 상하내향으로 있고, 판심제는 '壇'이다. 원문은 무계 9행 17자, 註雙行으로 되어 있다.

본문의 체제는 六祖大師法寶壇經序(德異撰), 略序, 跋, 悟法傳衣第一, 釋功德淨土第二, 定慧一體第三, 敎授坐禪第四, 傳香懺悔第五, 叅請機緣第六, 南頓北漸第七, 唐朝徵詔第八, 法門對示第九, 付囑流通第十, 知訥跋, 謹跋로 이루어져 있으며, 萬曆二年이라는 간기가 있다.

사용된 구결 자형은 '可, 厶, 去, 口, 乃, 又, 卜, 匕, 尼, 巳, 女, 丁, 尸, 木[미], 丨, 大, 弋, 氏, 丁, 田, 彐, 乙, 入, 厶, 丶, 万, 久, 亠, 勿, 氵, 亻, 一, 小, 亖, 是, 士, 七, つ, 冫, 才, 十, 午, 五, 刁, 曰[리], 之, 丿, 丷, 力, 加, 月, 刂, 乀, 尸'의 54개이다.

이 책은 간기(萬曆二年甲戌...全羅道...廣濟院重刊...)를 참조해 볼 때 1574년 전라도 광제원에서 중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7. 1880년 (가)본

이 판본의 서명은 '增註六祖壇經'이고 내제는 '六祖壇經重刻自序'이다. 이 책은 원문이 상·하 2권 2책이며 상 42장, 하 35장, 四周雙邊으

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다.

책의 크기는 약 25.1×18.0cm이다. 판심은 흑어미가 上下向으로 있고, 판심제는 없다. 원문은 무계 9행 18자이고, 원문의 增註는 24행 35(35-37)자로 되어 있다.

본문의 체제는 六祖壇經重刻自序略序(山田大應), 六祖大師法寶壇經序(德異撰), 六祖大師緣起外紀, 六祖大師法寶壇經卷上(行田第一, 般若第二, 疑問第三, 定慧第四, 坐禪第五, 懺悔第六), 六祖大師法寶壇經卷下(機緣第七, 頓漸第八, 宣詔第九, 付囑第十, 題跋, 刊記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된 자형은 'イ, ヴ, エ, オ, カ, ガ, キ, ク, ケ, サ, シ, ス, セ, ソ, タ, チ, ツ, テ, デ, ト, ニ, ヌ, ノ, ハ, バ, フ, ヘ, ベ, マ, ム, メ, モ, ヤ, ユ, ヨ, リ, レ, ロ, ㅐ, ヲ, ン, 玉, 一'의 43개이다.

이 책은 간기(明治十七年六月...同十八年八月刻成)를 참조해 볼 때 1885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8. 1880년 (나)본

이 판본의 서명은 '增註六祖壇經'이고 내제는 '六祖壇經重刻自序'이다. 이 책은 원문이 1책 63장, 四周雙邊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다.

책의 크기는 약 25.5×18.2cm이다. 판심은 흑어미가 상하향으로 있고, 판심제는 없다. 원문은 무계 9행 18자이고, 원문의 증주는 24행 35(35-37)자로 되어 있다.

본문의 체제는 六祖大師法寶壇經卷下(機緣第七, 頓漸第八, 宣詔第九, 付囑第十, 題跋, 刊記로 이루어져 있고 六祖壇經重刻自序略序(山田大應), 六祖大師法寶壇經序(德異撰), 六祖大師緣起外紀, 六祖大師法寶壇經卷上은 없다.

사용된 자형은 'ア, イ, ヴ, カ, ガ, キ, ク, ケ, サ, シ, ス, セ, ソ, タ,

チ, ツ, テ, ト, ニ, ノ, ハ, バ, フ, ヘ, マ, ム, メ, モ, ヤ, ユ, ヨ, リ, レ, ロ, ヲ, ン, 玉, ゴ, ヒ, ビ, ヶ'의 41개이다.

이 책은 간기(明治十七年六月...同十八年八月刻成)를 참조해 볼 때 1885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구결의 특징

≪단경≫ 이본의 구결들을 ≪단경≫ 언해본과 비교해 본 결과 '영남대 (가)본'은 언해본과 70% 이상 차이를 보이는 데 반해, '영남대 (나)본'과 '1479년본'은 80% 이상 일치하고 있음을 알았다. 또 '1496년본'은 언해본과 거의 일치하나, '1574년본'은 70% 정도가 일치하였다.

3.1. 문자 체계

≪단경≫의 이본들은 총 7종으로 한국에서 간행된 자료 5종 5권과 일본에서 간행된 자료 2종 2권이 있으나, 일본에서 간행된 자료의 자형은 문자표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단경≫ 이본의 구결 문자 체계는 다음과 같다.[7]

번호	자형	독음	영남대 가	영남대 나	1479본	1496본	1574본	본자
1	可	가	○	○	○	○	○	可
2	厶	거	○	○	○	○	○	去
3	去		○				○	

7) 구결 자형의 독음은 왼쪽 두 번째에 칸에 제시하고, 본자는 오른쪽 마지막 칸에 제시하였으며 표의 맨 아래쪽에 이본별 자형의 개수를 제시하였다. 구결의 문자 체계에서 자료를 제시한 순서는 자료의 간행 연대가 아니라 자료에 기입된 구결들의 기입 연대를 추정한 순으로 제시하였다.

번호	자형	독음	영남대 가	영남대 나	1479본	1496본	1574본	본자
4	口	고	○	○	○	○	○	古
5	古		○					
6	朩	과				○		果
7	人			○				
8	尹	나		○	○			那
9	乃		○	○	○	○	○	乃
10	女	녀					○	女
11	又	노	○	○	○	○	○	奴
12	了	뇨		○	○			了
13	匕	니	○	○	○	○	○	尼
14	尼				○		○	
15	匕	닉/나	○	○	○	○	○	飛
16	乛	ㄴ	○	○	○	○	○	隱
17	丨	다	○	○	○	○	○	多
18	夕				○			
19	大	대	○	○	○	○	○	大
20	力	더	○	○	○	○	○	加
21	加			○				
22	月	돌		○	○	○	○	月
23	氐	뎌/져	○	○	○	○	○	底
24	丁	뎡	○	○	○	○	○	丁
25	田	뎐					○	田
26	刁	도					○	刀
27	刀		○	○	○	○		
28	斗	두	○					斗
29	土	디	○	○	○	○		地
30	朩	돌		○				等
31	入	들	○	○	○	○	○	入
32	厶	듸	○	○	○	○	○	矣

번호	자형	독음	영남대 가	영남대 나	1479본	1496본	1574본	본자
33	弋	대					○	代
34	丶	라	○	○	○	○	○	羅
35	冫		○					
36	罒			○				
37	𠂢	로	○					以
38	し	ㄹ/을	○		○	○		乙
39	乙			○			○	
40	戶	리/려			○			驢/戾
41	尸			○	○	○	○	
42	刂	리	○	○	○	○	○	利
43	曰						○	里
44	广	마	○					麽
45	万	만		○	○	○	○	萬
46	久	며	○	○	○	○	○	旀
47	宀	면	○	○	○	○	○	面
48	勿	믈		○	○		○	勿
49	未	미				○		未
50	木	미					○	未
51	丑	ㅂ		○	○			邑
52	巴				○			
53	氵	사	○	○	○	○	○	沙
54	亼	샤			○	○	○	舍
55	舍		○	○				
56	一	셔		○	○	○	○	西
57	西		○			○		
58	立		○					立
59	立		○					
60	戶	소	○	○				所
61	所					○		
62	小	쇼	○	○	○	○	○	小

번호	자형	독음	영남대 가	영남대 나	1479본	1496본	1574본	본자
63	二	시	○	○	○	○	○	示
64	氏				○			氏
65	士	ᄉᆞ	○	○	○	○	○	士
66	白	ᄉᆞᆸ	○					白
67	七	ㅅ	○	○	○	○	○	叱
68	叱		○	○				
69	阿	아		○	○			阿
70	阝		○	○	○	○	○	
71	阝				○	○		
72	我			○				我
73	彐	야/어	○	○	○	○	○	良
74	厓	애		○	○			厓
75	つ	야					○	也
76	才	어	○	○	○	○	○	於
77	ㅗ	여	○	○	○	○	○	亦
78	五	오					○	五
79	午		○	○	○	○	○	午
80	卜	와	○	○	○	○	○	臥
81	位	위		○				位
82	爲					○		爲
83	ソ				○			
84	ㅋ	의	○	○	○	○	○	衣
85	刂	이	○	○	○	○	○	伊
86	其	제/그				○		其
87	只			○				
88	之	지		○	○	○	○	之
89	他	타		○				他
90	土	토	○					土
91	下	하	○					下
92	ノ	호	○	○	○	○	○	乎
93	丂	호		○	○	○		

번호	자형	독음	영남대 가	영남대 나	1479본	1496본	1574본	본자
94	𠂉	히	○	○	○	○		兮
95	屎			○				屎
96	ᄉ	ᄒᆞ	○	○	○	○	○	爲
97	是	시					○	是
98	十	히	○					中

≪단경≫ 이본들의 구결을 ≪단경≫ 언해본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8번의 'ᄒᆞᆫ'와 9번의 'ᄀᆞ', 15번의 'ᄒᆞᆫ'는 동일한 음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남대 (가)본'의 경우는 그 쓰임에 있어 9번의 'ᄀᆞ'는 'ᄉᆞᄀᆞ', 'ᄋᆞᄂᆡᄀᆞ', 'ᄉᆞᆫᄀᆞ' 등과 같이 주로 연결어미에 사용되는데 반해 15번의 'ᄒᆞᆫ'는 'ᄉᆞᄒᆞᆫ, ᄂᆞᄒᆞᆫ, ᄂᆞᄀᆡᄒᆞᆫ, ᄉᆞᆫᄒᆞᆫ, ᄉᆞᆫᄒᆞᆫ, ᄉᆞᆫᄂᆡᄒᆞᆫ' 등과 같은 연결어미 '나'에 대응될 뿐만 아니라 'ᄒᆞᆫᄃᆞᄉᆞᆫᄒᆞᆫ, ᄂᆡᄉᆞᆫᄒᆞᆫ, ᄂᆡᄉᆞᆫᄒᆞᆫᄃᆞ, ᄃᆞᄉᆞᆫᄒᆞᆫ, ᄃᆞᄉᆞᆫᄒᆞᆫᄉᆞᄂᆡ, ᄉᆞᄃᆞᄉᆞᆫᄒᆞᆫ, ᄉᆞᆫᄒᆞᆫᄃᆞ, ᄉᆞᆫᄒᆞᆫᄀᆞ, ᄉᆞᆫᄒᆞᆫᄃᆞ, ᄉᆞᆫᄒᆞᆫᄉᆞᄂᆡ, ᄉᆞᄃᆞᄉᆞᆫᄒᆞᆫᄉᆞᄂᆡ' 등과 같이 선어말어미 'ᄂᆞ'에 대응된다. '영남대 (나)본'의 경우는 8번의 'ᄒᆞᆫ'와 9번의 'ᄀᆞ'는 연결어미 '나'의 표기에 대응되는 반면, 15번의 'ᄒᆞᆫ'는 선어말어미 'ᄂᆞ'의 표기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1479년본'은 이본들보다 15번 'ᄒᆞᆫ'의 쓰임이 매우 적은 편이나 '영남대 (나)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8번의 'ᄒᆞᆫ'와 9번의 'ᄀᆞ'는 연결어미 '나'의 표기에 대응되는 반면, 15번의 'ᄒᆞᆫ'는 선어말어미 'ᄂᆞ'의 표기에 대응된다. '1496년본'과 '1574년본'에서는 9번의 'ᄀᆞ'가 연결어미 '나'의 표기에, 15번의 'ᄒᆞᆫ'는 선어말어미 'ᄂᆞ'의 표기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8]

8) 이 자형들과 관련하여 정재영(2000:73-103)에서는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ᄂᆞ-'와 그 변화에 대해 논하면서 '-ᄀᆞ-', '-ᄒᆞᆫ-'로 표기된 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 '-ᄂᆞ-'가 선어말어미 '-겨-'나 '-거-'와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 기능을 현재를 나타내는 시상형태소도 아니고 확인법도 아닌, 서법을 나타내는 문법형태소로 보고 확인, 회상, 추정 등과 대립되는 것이라 보았다. 또한 백

≪단경≫ 이 외의 음독 구결 자료에도 이들 자형들이 거의 동일한 자리에 쓰인 용례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선어말어미 자리에 동일하게 쓰인 '可ㅅㅌㅌ, 去ㄱㅌ斗, ㅌㅌ, ㅅㅅㅌㅌ, ㅅㅅㄱㅌㅅㅅ, 尸ㄱㅅㅅㄱㅌㅌㅅ, 午ㅅㅌ저, ㅅㅌㅌ, ㅅㅌㅌㅅ, ㅅㅅㅅㅌㅌ, ㅅㅅㅅㅌㅌㅣ, ㅅㅅㅅㅌㅌㅅ, ㅅㅌ去ㄱㅋㅣㄴ, ㅅㅌㅁ, ㅅㅌㅌ' 등과 어말어미 자리에 동일하게 쓰인 '去乃, 去乃ㅅㄱ, 去刂ㅅ乃, ㄱ ㅎㄴㅅ乃, ㄴㅅㄱ乃, ㅅㅅ乃, 今乃, 才乃, 才乃ㅅㅌ, ㅅ乃, ㅅㅅㅅ乃, 刂乃, 刂今乃ノㅌ, ㅅ乃, ㅅㅅㅅ乃, ㅅㄱ乃, ㅅㅅ乃' 등과 '去ㅌ才ㅌ, 去ㅌ, 去ㄱㅌ, ㅁㅗㄱㅌ, 土ㄱㅌ, ㅅノㅌ, 今ㅌ, 才ㅌ, 才ㄱㅌ, ㅅㅌ, ㅅ今ㅌ, 刂才ㄱㅌ, ㅅㅌ, ㅅ手才ㅌ, ㅅ手ㅋㅌ, ㅅㄱㅌ' 및 '去尹, 尹, 才尹, 才尹ㅅㅌ, ㅅ尹, ㅅ尹, ㅅ尹ㅌ, ㅅㄱ尹' 등이 그것이다. 이때의 자형 'ㄱ'와 'ㅌ'는 중세한국어 언해에서 앞 문장과 뒷 문장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 오는 연결어미 '-나'와 확인의 의미 요소, 현재 시상의 의미 요소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자형 'ㄱ'와 'ㅌ'는 선어말어미에 사용되든 어말어미에 사용되든, 그 음가는 'na'를 표기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두 자형은 '尹'로도 표기되었는데 이때의 자형 '尹'도 그 독음이 동일했을 가능성이 크다.[9] 이때의 8번 '尹'와 9번 'ㄱ', 15번 'ㅌ'는 구결을 기입하는 기입자의 자형 선택에 따라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음독 구결에서 'ㄱ'와 'ㅌ' 두 자형 모두가 초기 자료에서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형 'ㄱ'는 선어말어미의 세력이 약화되어 점차 어말어미 자리에서만 쓰이게 되었으며, 선어말어미의 자리는 자형 'ㅌ'가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10]

두현(1996:175)에서는 석독 구결에서 선어말어미와 형식명사로서 기능했지만 음독 구결에서 형식명사의 기능이 없어졌다고 보았다.

9) 남경란(2005:199-200) 참조.

10) 남경란(2005:198-199) 참조.

11번의 'ㆆ'와 37번의 'ㅱ'도 언해본과 비교해 보면 언해본에서 동일한 음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남대 (가)본'의 경우는 그 쓰임에 있어 11번의 'ㆆ'는 'ㆆㅣ[로다]'와 'ㅱㅣ', 'ㄴㆆ[으로]'와 'ㄴㅱ', 'ㅣㆆㅣ[이로다]'와 'ㅣㅱㅣ'와 같이 음 '로'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37번의 'ㅱ'의 경우는 역으로 'ㅿㅱㅌ[ᄒᆞ노니], ㅿㅱㆍ[ᄒᆞ노라], ㅿㅱㅊㅣ[ᄒᆞ놋다], ㅿㅱㅣㅣ[ᄒᆞ노이다], ㅿㅑㅱㆍ[ᄒᆞ야노라]'에서와 같이 음 '노'에 대응되는 경우을 흔히 찾을 수 있다. '영남대 (나)본'과 '1479년본', '1496년본', '1574년본'의 경우는 37번의 'ㅱ'가 나타나지 않고 다만 11번의 'ㆆ'가 언해본과 비교해 볼 때 '노(ㅿㆆㅌ 등)'와 '로(ㆆ西, ㅿㅅ勿ㆆ 등)'의 두 음에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경≫ 이외의 음독 구결 자료에도 이들 자형들이 거의 동일한 자리에 쓰인 용례도 많이 나타나는데, 'ㅣㆆㄱㅗ[이론디], ㅣㆆㅌ[이로니], ㅣㆆㅣ[이로다], ㅣㆆㅁ[이로딕], ㅿㅌㆆ[ᄒᆞᄂᆞ로], ㅿㅱㅅ[ᄒᆞ노라]' 등을 들 수 있다. 11번의 'ㆆ'는 음독 구결 자료에서 대부분 의도의 의미와 감동의 의미를 지닌 요소로서 선어말어미 '-ᄂᆞ-'와 의도의 의미 '-오-'의 결합 형태로 볼 수 있다. 남경란(2003)에서는 37번 'ㅱ'와 11번 'ㆆ'의 시기별 분포를 검토하여 고려말기 자료인 ≪능엄경≫ '(나)본', '(가)본', '(라)본'에서의 'ㆆ'의 쓰임이 조선 초기본인 '(다)본'과 '파전본'보다 더 많음과 'ㆆ'의 쓰임이 'ㅱ'보다도 더 많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남경란(2005)에서는 37번 'ㅱ'가 음독 구결의 고려 말기 자료에서는 빈번히 사용되다가 조선 초기 자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ㅱ' 대신 'ㆆ'가 사용되고 있음으로 미루어 자형 'ㅱ'류는 14세기 말경에 이미 소실되기 시작하여 후대로 오면서 자형 'ㆆ'로 통합된 것으로 본 바 있다.[11]

---

11) 37번의 'ㅱ'에 대해 이승재(1992:115-116)에서는 이두에 사용된 '以'의 기능이 기구, 자격, 방향, 원인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또한 주격, 대격, 처격 등의 격 기능의 표기에도 사용된 듯한 예도 많다고 보았다. 또 백두현(1996)에서는 이 자형이 구격 조사로 가장 많이 쓰이고 '-로' 음을 표기한 'ㅱ'가 후대 문헌

27번의 'ㄱ'와 28번의 'ㅺ'는 언해본과 비교해 보면 언해본에서 두 자형이 동일한 음에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남대 (가)본'에서 그러한데 'ㄴᆞㄱ/ㄴᆞㅺ', 'ᄂᆞᆫㄱㅣ/ᄂᆞᆫㅺㅣ, ㄴᆞᄂᆞᆫㅺㅣ' 등을 들 수 있다. 음독 구결 자료에서 27번의 'ㄱ'와 28번의 'ㅺ'는 일반적으로 감동, 양보, 공동, 첨가 등의 의미에 대응되는데, 고려시대에 간행된 자료에 나타나는 이 자형들은 음독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자형 'ㅺ'류와 그 의미 기능뿐만 아니라 독음도 동일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28번의 'ㅺ'는 14세기말부터 소실되기 시작하여 15세기 초가 되면 거의 사라지고 점차 27번의 'ㄱ'로 통합되어[12] 15세기 초 이후의 자료에서는 거의 27번의 'ㄱ'로만 표기되고 있다.

17번의 'ㅣ'와 22번의 '月', 30번의 'ㅸ', 31번의 'ㅅ' 역시 언해본과 비교해 보면 언해본에서 이들 자형이 동일한 음에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남대 (가)본'의 경우는 17번의 'ㅣ'와 31번의 'ㅅ'가 언해본의 음 'ᄃᆞ'와 대응되고 있으며, '영남대 (나)본'의 경우는 22번의 '月'가 언해본의 음 'ᄃᆞ'에 31번의 'ㅅ'는 언해본의 음 '드', 또는 'ᄃᆞ'에 대응된다. '1479년본'과 '1496년본' 및 '1574년본'에서는 31번의 'ㅅ'이 언해본의 음 '드', 또는 'ᄃᆞ'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음독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17번 'ㅣ'와 22번 '月', 30번 'ㅸ', 31번 'ㅅ'과 관련하여 남경란(1997)에서는 구결 자형의 쓰임에서 자형 'ㅣ'와 공통성을 찾을 수 있는 구결을 자형 'ㅸ', 'ㅁ', 'ㅅ'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남경란(1997)에서는 'ㅣ', 'ㅁ', 'ㅸ'는 모두 문장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으며, 또 'ㅣ', 'ㅅ', 'ㅸ'는 조건을 나타내거나, 회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자형 'ㅣ'는 '문장 종결, 비유 구문, 회상법, 조건 표현' 등에 사용되었으며, 자형 'ㅅ'는 '감동 표현, 회상법, 조건 표현, 원인 표현, 형식 명사형' 등에 사용되었다

일수록 '-ㅈ'로 대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12) 남경란(2005:226-227) 참조.

는 점과 또 자형 'ㅗ'은 '회상법, 형식 명사형, 비유 구문, 조건 표현, 가정의 표현, 원인의 표현, 감동 표현' 등에 사용되었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13]

19번의 'ㅊ'와 31번의 'ㅅ'은 ≪단경≫ 이본 가운데 특히 '영남대 (가)본'에 있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ᄉᆞᆫ ᄎᆞᆨ/ᄉᆞᆫ ᄉᆞᆨ', 'ᄀᆞᆫ ᄎᆞᆨ/ᄀᆞᆫ ᄉᆞᆨ', 'ᄂᆞᆫ ᄎᆞᆨ/ᄂᆞᆫ ᄉᆞᆨ', 'ᄂᆞᆫ ᄎᆞᆨ/ᄂᆞᆫ ᄉᆞᆨ', 'ᄂᆞᄲᆞᆫ ᄎᆞᆨ/ᄂᆞᄲᆞᆫ ᄉᆞᆨ' 등이 그것이다.

56번의 'ᄀᆞᆫ'와 57번의 'ᄆᆞᆫ', 58번의 'ᄒᆞᆫ', 59번의 'ᄒᆞᆫ'는 언해본과 비교해 보면 언해본에서 동일한 음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개 음 '셔'에 대응된다. ≪단경≫ 이본 가운데 '영남대 (가)본'의 경우는

---

13) 이승재(1993)에서는 'ㅅ'은 형식명사 'ᄃᆞ'에 'ㄹ'이 통합된 '둘', 그리고 '-거든/어든'의 어미를 표기하는 데에 쓰이는데, '든'을 표기할 때에는 'ㅅ' 뒤에 항상 'ㄱ'을 덧표기하였다고 지적하였다.[예) ᄇᆡᄀᆞᄉᆞᆫ(인돌), ᄇᆡᄀᆞᄉᆞᆫᄂᆞᆫ(인ᄃᆞ녀), ᄇᆡᄉᆞᄉᆞᆨᄀᆞ(이어든), ᄀᆞᄉᆞᆨᄀᆞ(거든)] 그리고 남풍현(1990)은 'ㅅ'의 대표음을 人의 훈을 고려하여 [들]로 잡고 1) '들-≫돌', 2) '들-≫드-≫ᄃᆞ'로 전용되어 쓰였다고 보았으며, (1996)에서는 'ㄱ' 동명사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ㅅ'에 대해 논하면서 'ㄱㅅ'에 'ㄴ'이 결합한 'ㄱㅅㄴ/ㄴ들'은 후대에는 어미로 발달한 것이지만 당시의 각 형태소의 기능이 분명히 살아 있다고 보았다. 또 'ㄱㅅ'에 'ㄱ'이 결합한 'ㄱㅅㄱ/ㄴ든'의 경우도 역시 후대의 '-거든'에 이어지는 어미로 발달하기도 하였으나 결합형에는 각 형태소의 구별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였다. 아울러 'ㄴ', 'ㄱ' 대신에 'ㅭ'가 연결될 때 'ㄱㅅㅭ'는 'ㅭ'에 의해 원인의 의미가 더해지며 동명사어미와 의존명사 'ㅅ'가 그 장치를 만드는 데 보조를 하여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형태로 발달하였다고 보면서 이 인과관계의 표현, 'ㄱㅅㅭ/ㄴᄃᆞ로'는 이두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신라시대부터 쓰여 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남풍현은 ≪직지심체요절≫에서 'ᄀᆞᄉᆞᄑᆞ/커든'을 찾아내어 이것이 중세국어의 조건의 뜻과는 달리 대조의 뜻으로 쓰였다고 하였다. 아울러 (1997)에서는 15세기 정음문헌의 과거시제 어미 '-더-'가 고려시대에는 '-드-'로 소급되며 이것의 표기가 'ㅅ'라고 보면서 'ᄂᆞᄉᆞᇰᄀᆞᆷᄒᆡ/ᄒᆞ드샤가'를 분석하면 'ᄒᆞ+드+시+오+가'가 되니, '드'와 '시'의 순서를 바꾸면, 'ᄒᆞ+시+드+오+가'가 되고 '드+오'가 결국 '-다-'가 되는 것을 '드'에서 '-더-'로의 변화한 과정이라 지적한 바 있다.

'ᄉᆞᆼ小西, ᄂᆡ西ᄉᆞᆼᄭᅡ, ᄂᆡᄉᆞᆼ西, 西, ᄉᆞᆼ小西, ᄉᆞᆼ小ᅀ, ᄉᆞᆼ小ᅀ, ᄉᆞᆼᄉᆞᆼᅀ' 등과 같이 57번 '西', 58번 'ᅀ', 59번 'ᅀ'가 동일한 음에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영남대 (나)본'과 '1479년본'과 '1496년본' 및 '1574년본'에서는 모두 56번 '一'가 언해본의 음 '셔'에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479년본'에는 57번 '西'가 56번 '一'와 마찬가지로 언해본의 음 '셔'에 대응되는 것이 '영남대 (나)본', '1496년본', '1574년본'과 다르다. 이 자형들은 여말선초 음독 구결 자료에서 'ᅀ'로도 표기되기도 하였는데, ≪능엄경≫ 이본에 나타나는 'ᄉᆞᆼ小ᅀ, ᄉᆞᆼ小ᅀ' 등이 그것이다. 이때의 자형 'ᅀ'의 본자는 1992년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행한 ≪동양삼국의 약체자 비교 연구≫(225쪽)과 1977년에 발행된 ≪명문신옥편≫(160쪽) 등을 참고해 볼 때 한자 '서'로 추정된다.[14]

60번의 'ᄇᆞ', 61번의 '所'와 62번의 '小'는 ≪단경≫ 이본 가운데 '영남대 (가)본'과 '영남대 (나)본', '1496년본', '1574년본'에서는 공통점이 없으나 '1479년본'에서의 쓰임이 흥미롭다. '1479년본'에서는 60번 'ᄇᆞ'와 62번 '小'가 언해본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음 '소'에 대응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음독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독 구결 자료에서 특히 62번의 '小'는 'ᄃᆞᆫ小ᅀ ᄉᆞᆷ, ᄃᆞᆫᄉᆞᆼ西, ᄃᆞᆫᄉᆞᆼᅀ, ᄃᆞᆫᄉᆞᆼᅀ, ᄉᆞᆼᄉᆞᆼᅀ, ᄉᆞᆼ小一, ᄉᆞᆼ小西, ᄉᆞᆼ小ᅀ, ᄉᆞᆼ小ᅀᄉᆞᆼ, ᄉᆞᆼ小ᅀ' 등과 같이 중세한국어 문헌 자료의 음 '쇼'에 대응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1479년본'에서는 62번의 '小'가 음 '쇼'뿐만 아니라 60번의 'ᄇᆞ'과 같은 음 '소'에 대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 '소'에 대응되는 62번 '小'의 용례는 '又小ᄉᆡ'와 'ᄉᆞᆫᄀᆡ小ᄉᆡ' 등을 들 수 있다.

81번의 '位'와 82번의 '爲', 83번의 'ᄉᆞᆼ'는 언해본과 비교해 보면 모두 음 '위'에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83번의 'ᄉᆞᆼ'는 96번

14) 남경란(2005:263) 참조.

의 'ᄂᆞ[ᄒᆞ]'와 그 꼴이 같아 이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83번의 'ᄂᆞ'는 본자 '爲'의 음을 빌려온 것이고 96번의 'ᄂᆞ[ᄒᆞ]'는 본자 '爲'의 석(새김)을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대응 음이 다르다. 그런데 '영남대 (나)본'에 나타나는 81번의 '位'는 음독 구결 자료 가운데서 흔히 찾을 수 없는 자형으로 82번 '爲'와 83번 'ᄂᆞ'와 마찬가지로 언해본의 음 '위'에 대응된다. 남경란(2005:284-286)에 의하면 이들 자형들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능엄경≫이 언해되던 시기에 음독 구결 자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28번 'ㅛ'와 35번 'ㅅ', 44번 'ㄱ', 90번 'ㅗ', 91번 'ㅜ', 97번 'ㅓ' 등은 '영남대 (가)본'에서만 사용되었으며, 72번의 '我', 89번의 '他', 94번의 '屎' 등은 '영남대 (나)본'에서 사용되었다. 또 10번의 '女', 25번 '田', 33번 'ᄉᆞ', 43번 '曰', 75번 'ㄱ', 96번 '是'는 '1574년본'에만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90번 'ㅗ'와 89번 '他'는 여말선초 음독 구결 자료에서 드물게 발견되며, 후대에는 한글 구결 'ᄐᆞ/토', '타'를 그대로 사용하여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90번 'ㅗ'는 '衣'와 결합하여 중세한국어 언해 자료의 '어디어디에 미침'의 의미를 지닌 '-도록', '-ᄐᆞ록'[15]의 형태에 대응하는 유형이며, 89번의 '他'는 여말선초에 간행된 ≪법화경≫ 이본에서 'ノ女他可', 'ノ丶他ヒ', 'ノ丶他ㅅㅣ', '他ㅅㅣ' 등으로 실현되는데 중세한국어 언해 자료의 '-타-'[16]에 대응된다.

---

15) (1) ᄒᆞᆫ ᄠᅴ 계도록 긴다가 몯ᄒᆞ야 ≪월七 9≫
더리도록 아니 앗기놋다 ᄒᆞ야 ≪석六 26≫
(2) 비록 종일ᄐᆞ록 행ᄒᆞ야도 아디 몯ᄒᆞ야 ≪능一 81≫
반ᄃᆞ기 종신ᄐᆞ록 공급ᄒᆞ야 ᄃᆞ녀 브리요리라 ≪법화四 154≫

16) 열반애 ᄲᆞᆯ리 드로리로타가(疾入於涅槃) ≪법화一 235≫
나가고져타가 호랑ᄋᆞᆯ 젼노라(欲出畏虎狼) ≪두초八 29≫

3.2. 결합 유형

可	可ソ氵	去	去口、	去丁大丁
去丁入丁	去丁、	去丁广丁	去卜	去ヒ
去ヒト	去入	去ヒセロ	去ヒ午	去ヒ乀セロ
去入去	去入丁	去し	去、	去广丁
去セロ	去ニヒ	去セソヒ	去セソ全土乀丨	去ニし
去乀丨	去乀ノヒ、	去乀ソ氵	去ノリヒ	去ソヒ、
去ソッヒ	去入丁	去ソ小西	去ソニロ	去ソ氵
ロ	ロ丁	口、	丁	丁大
丁大丁	丁氐	丁入丁	丁入丁丁	丁入丁ソカヒ
丁入しロ	丁入ユ	丁入しソ久	丁入しソニロ	丁入しソ氵
丁オヒ	丁入ソニロ		丁入しソリ乀セロ	
乃	又	又丨	ト	トア
トヒ	ト乀	ヒ	ヒ、	ヒ、ソヒヒ
ヒ午	丨	大丁	刀	入丁ソニロ
入	入丁ソヒ、	土ヒ(?)ソヒ	土セロソア	土セソヒ
ム	し	し[][]ソ氵ヒ	しア大	し又
しヒ、	し入しロ	しま	し、刀	しッ
しッア	し西ソッ、	しニヒ	しソカヒ	
しソヒ	しソヒ、	しソヒヒ	しソヒヒ、	しソ丨土丁
しソし士	しソア	しソ氵ヒ	しソ氵西	しソユヒ午
、	、ヒ	、刀	、入丁	、七可
、ソカヒ	、ソア	、ソヒ、	、ソヒヒ	、ソヒヒ乀丨
、ソニ丨	、ソユし	、ソユニヒ	、ソリ、	个
ッ	ッア	ッ丨	久	久乀
ア	七	七可	七ロ	七ソ氵

叱　　𠃌　　西　　ニ𠃊　　ニヒ

ニヒ、ンヒ、　　𠃌　　𠃌𠃊　　𠃌入しンう

𠃌七　　𠃌𠃌　　𠃌ンう乀丨　　尸　　オ𠃊

オ𠃊丁　　オ𠃊广𠃊　　オヒ　　オヒト　　オヒ七ユ

オ丨　　オ入𠃊　　オし　　オセ丨　　オニ乃

ユ　　ユヒ、　　ユンヒ　　午　　午ンう

ヲ　　乀　　乀カ𠃊ヒ　　乀カ、　　乀ロ

乀𠃊　　乀乃　　乀又　　乀又丨　　乀ヒ

乀丨　　乀大𠃊　　乀入　　乀入𠃊　　乀、

乀、[]　　乀、ロ　　乀、ヒ　　乀、ヒ、　　乀、丨𠃊

乀、刀　　乀、斗　　乀、入しンニロ　　乀、七丨乀

、午　　乀、乀𠃊　　乀、ンカヒ　　乀、ンヒ　　乀、ンヒヒ

乀、ン、　　乀、ン斗丨　　乀、ンッヒ　　乀、ン久　　乀、ンニロ

乀、ンう　　乀、ンニヒ　　乀ッ丨　　乀ッム　　乀ッ戸丨

乀ッ乀丨　　乀ッ戸乀丨　　乀久　　乀ッンㄱ大𠃊　　乀七可

乀七ロ　　乀七丨　　乀う、　　乀オ𠃊丁　　乀オヒ

乀オ丨　　乀オ丁　　乀オ入𠃊　　乀オノ𠃊丁　　乀オニヒ

乀オし　　乀ユ　　乀午　　乀午𠃊　　乀乀七ロ

乀刂　　乀刂ヒ、　　乀刂、　　乀刂七ロ　　乀刂午

乀ノ刂、　　乀刂乀七ロ　　乀ン久　　乀ンう𠃊　　刂、

刂七　　刂午　　刂乀七ロ　　ノ𠃊　　ノ𠃊大

ノ𠃊入𠃊　　ノ𠃊入ッ　　ノ𠃊土　　ノ𠃊ム𠃊　　ノヒ

ノヒ、　　ノヒ午　　ノヒ　　ノム　　ノ乀丨

ノ刂　　ノ刂ヒ　　ノ刂ヒ　　ノ刂丨　　ノ刂、ン𠃊大

ノ刂、　　ノ刂、ンう　　ノ刂七ロ　　ノ刂乀丨　　ノ刂乀七ロ

ㄎ　　ン[]丨　　ンカヒ　　ンカヒ、　　ンカヒ午

ンカ、　　ンカ个　　ンカ全可　　ンカニヒ　　ン云七丨

ソロ　ソロ了ム　ソ了　ソ了大　ソ了大了
ソ了入　ソ了入了　ソ了入し　ソ了入しロ　ソ了入ッ
ソ了土　ソ了入ユ　ソ了・大　ソ乃　ソ又ヒ
ソ又丨　ソ又入了　ソ又土　ソ又・　ソヒ
ソヒロ　ソヒト　ソヒヒ　ソヒ・　ソヒ・ソヒヒ
ソヒヒ　ソヒ　ソヒロ　ソヒ了　ソヒヒ
ソヒヒ・　ソヒ乀丨　ソ丨　ソ丨可　ソ丨ヒ
ソ大ヒ　ソ刀丨　ソ斗丨　ソ入全可　ソ入ニヒ
ソし　ソし土　ソ入ソ全可　ソし可ソッ[]　ソし可ソッ・
ソしッ　ソしニヒソしニソし・　ソニロ　ソしニ午
ソし土　ソし土ヒ　ソしソ全ム　ソ・　ソ・ロ
ソ・了ム　ソ・ヒ　ソ・ヒ了　ソ・ヒ午　ソ・ソヒし乀丨
ソ・氵　ソ・ソニ丨　ソ・ソ力乀丨　ソ・ソニロ　ソッ了大了
ソッ　ソッ了土　ソッヒ　ソッ丨　ソッ丨入了
ソッ・　ソッセ丨　ソッ乀丨　ソ久　ソ久了
ソ久ヒ　ソア　ソア了　ソ全　ソ全ム
ソ小西　ソ小立　ソ小　ソニロ　ソニ古
ソニ了大　ソニヒ　ソニヒヒ　ソニヒ・　ソニ丨
ソニム　ソニし土　ソニ久　ソニア　ソニソヒヒ
ソ白ロ　ソニソ斗　ソ氵　ソ氵云广　ソ氵了
ソ氵ヒ　ソ氵刀　ソ氵入了　ソ氵ム　ソ氵し
ソ氵・　ソ氵ッ・　ソ氵久　ソ氵氵　ソ氵ラ[]乀丨
ソ氵乀丨　ソ氵ソ了大　ソ氵　ソユヒ午　ソユし
ソリロ　ソユニヒ　ソユニし　ソリヒ・　ソリヒ乀
ソリヒ　ソリ・　ソリ・ソ全　ソリセロ　ソリ戸乀丨
ソリ午　ソリオ久　ソリ乀ロ　ソリ乀セロ　ソ十
十　[]ソしニヒ　[]オヒト

이상에서 제시한 결합 유형은 ≪단경≫ 이본 가운데 '영남대 (가)본'의 결합 유형이다. 총 388개 가운데 'ㅿ(02ㄴ1), ㅿㅁ、(08ㄱ7), ㅿㄱ、(57ㄱ6), ㅿㅅㅿ(08ㄱ6), ㅿㅌㅁ(51ㄱ10), ㅁ、(08ㄱ10)(08ㄱ8)(08ㄴ4), ㄴㅅㅣㅗㅜ(36ㄱ5), ㅅㅿㅌㅣ(52ㄱ5), ㅅㅁㄱㅁ(43ㄱ2), ㅅㄷㅅㅂㅂ(15ㄱ1), ㅅㄷㅅㅐ(34ㄱ10), ㅅㅗ(05ㄴ4)' 등의 쓰임이 흥미롭다. 이들의 쓰임을 ≪단경≫ 언해본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ㅿ

[영(가)본] 祖以坐具一展ㄷㅂ 盡嶂曺溪四境四天(02ㄱ10)游揚ㅅㅋ **至前ㅿ** 師ㅅ 以鉢ㅈ 舀之ㅅㄷㅁ 龍不能動師持鉢堂上(02ㄴ1)與龍ㅈ 說法ㅅㄷㅂ 龍ㅅ 遂蛻骨而去ㅿㄴ 其骨長可七寸ㅂ 首尾(02ㄴ2)角足ㅅ 皆具ㅅㅅㅋㅂ 留傳寺門ㅅㅂ、(02ㄴ3)

[諺解本] 祖ㅣ 以坐具ᄅᆞᆯ 一展ᄒᆞ시니 盡嶂曺溪四境(서015ㄱ-5)커ᄂᆞᆯ 四天游揚**至前커ᄂᆞᆯ** 師ㅣ(서021ㄴ-4)以鉢로 舀之ᄒᆞ시니 龍不能動커ᄂᆞᆯ 師ㅣ 持鉢堂(서021ㄴ-5)上ᄒᆞ야 與龍說法ᄒᆞ시니 龍이 遂蛻骨而去ᄒᆞ니 其(서021ㄴ-6)骨長이 可七寸이오

(2) ㅿㅁ、

[영(가)본] 望上(08ㄱ6)人ㅅㅸㅂ 引至偈前ㅅㅋ 禮拜**ㅿㅁ、** 童子引至偈前ㅅㄴ 作禮ㅅㅁ 能ㅅ 曰ㄴㅁ(08ㄱ7)

[諺解本] 望(상023ㄱ2)上人이 引至偈前ᄒᆞ야 禮拜**ᄒᆞ라** 童子ㅣ 引至偈(상023ㄱ3)前ᄒᆞ야 作禮케ᄒᆞᆫ대 能이 曰호ᄃᆡ

(3) ㅿㄱ、

[영(가)본] 同時ㅋ 興化ㅅㅋ 建立吾宗ㄴㅁ 締緝伽藍ㅅㄱ 昌隆法嗣ㅅㅛ、 問曰ㅋ 未(57ㄱ5)知**ㅿㄱ、** 從上佛祖ㅅ 應現已來ㄱ 傳授幾代ㅅㅛㅌㅁ 願垂開示ㅅ小西(57ㄱ6)

[諺解本] 同時興化ᄒᆞ야 建立(하66ㄱ7)吾宗ᄒᆞ야 締緝伽藍ᄒᆞ야 昌隆法嗣ᄒᆞ리라 問曰호ᄃᆡ(하66ㄱ8)未知커이다 從上佛祖ㅣ 應現已來ㅣ 傳授幾(하66ㄴ1)代ㅣ니잇고 願垂開示ᄒᆞ쇼셔

(4) ᄉᆞᆫᄉᆞ

[영(가)본] 上人ㅣ 我此踏碓ᄉᆞᆫᄉᆞ 八箇餘月ᄂᆞᄆᆞᆷ 未曾行到堂前ᄂᆞᄆᆞ、(08ㄱ6)

[諺解本] 上人아 我此(상023ㄱ1)踏碓ᄒᆞ얀ᄃᆡ 八箇餘月호ᄃᆡ 未曾行到堂前호니

(5) ᄉᆞᄒᆡᄅᆞ

[영(가)본] 德ᄂᆞ 皆云ᄂᆞᆷ 欲得會道ㄱᄎᆞㄱ 必須坐禪習定ᄂᆞᄀᆡᄒᆡ 若不因禪定(51ㄱ9)而得解脫者ㄱ 未之有也ᄒᆡ、ᄂᆞᄒᆡᄒᆡ 未審ᄉᆞ、 師所說法ㄱ 如何ᄉᆞᄒᆡᄅᆞ(51ㄱ10)

[諺解本] 德이 皆云호ᄃᆡ 欲得會道ᄂᆞᆫ댄 (하31ㄱ6)必須坐禪習定이니 若不因禪定ᄒᆞ고 而得解脫(하31ㄱ7)者ㅣ 未之有也ㅣ라ᄒᆞᄂᆞ니 未審커이다 師의 所說(하31ㄱ8)法은 如何ㅣ잇고

(6) ㄹᆞ、

[영(가)본] 能ᄂᆞ 曰ᄂᆞᆷ 能(08ㄱ7)不識字ᄂᆞᄆᆞᄒᆡ 請上人ᄂᆞᄆᆞᄒᆡ 爲讀ㄹᆞᄂᆞ 時ㅣ 有江州別駕ᄂᆞ 姓ㄱ 張ᄒᆞ 名ㄱ 日(08ㄱ8)用ᄒᆡ 便高聲ᄂᆞᄆᆞ 讀ᄂᆞᄀᆡᄂᆞ 能聞已ᄂᆞᄅᆞ 因自言ᄂᆞᆷ 亦有一偈ᄂᆞᄒᆡ 望別駕ᄂᆞ、ᄒᆡ(08ㄱ9) 爲書ㄹᆞ、 別駕言ᄂᆞᆷ(08ㄱ10)

[諺解本] 能이 曰호ᄃᆡ 能은 不識字ᄒᆞ노니(상023ㄱ4)請上人이 爲讀ᄒᆞ라 (상024ㄱ3)時有江州別駕ㅣ 姓은 張이오 名은 日用이러니 (상024ㄱ4)便高聲으로 讀ᄒᆞᆫ대 能이 聞已ᄒᆞ고 因自言호ᄃᆡ 亦有(상024ㄱ5)一偈호니 望別駕ㅣ 爲書ᄒᆞ라 別駕ㅣ

言호더

(7) ㄴᄂᆞㅣ土丁

[영(가)본] 而告師曰ᄂᆞᆷ 法達ㄱ 徒(36ㄱ4)昔已來ᄭᅩ 實未曾轉法華ᄂᆞᄒᆞ 乃被法華ᄅᆞ 轉<u>ㄴᄂᆞᄂᆞㅣ土丁</u> 再啓曰ᄂᆞᆷ 經(36ㄱ5)云ᄂᆞᆷ 諸大聲聞ㅏ 乃至菩薩ㅏᄂᆞ 皆盡思共度量ᄂᆞᄒᆞㄲ(36ㄱ6)

[諺解本] 而告師曰호더 法達은 徒昔已來로 實未曾(중066ㄱ3)轉法華ᄒᆞ고 乃被法華轉<u>ᄒᆞ다ᄉᆞ이다</u> 再啓曰호더 經(중066ㄱ4)云ᄒᆞ샤더 諸大聲聞과 乃至菩薩이 皆盡思共(중066ㄱ5)度量ᄒᆞ야도

(8) ᄂᆞᄉᆞᄂᆡㅣ

[영(가)본] 卽離兩邊(52ㄱ4)說一切法ᄂᆞᄒᆞᆷ 莫離自性ᄂᆞ、 忽有人ᄂᆞ 問汝法<u>ᄂᆞᄉᆞᄂᆡㅣ</u> 出語ᄂᆞ 盡雙(52ㄱ5)皆取對法ᄂᆞᄒᆞ

[諺解本] 卽離兩邊ᄒᆞ고 說一切法호더 莫離自性이니라 (하41ㄱ5)忽有人이 問汝法<u>커든</u> 出語ᄅᆞᆯ 盡雙ᄒᆞ야 皆取對(하41ㄱ6)法ᄒᆞ야

(9) ᄂᆞᄆᆞㄱᆞᆷ

[영(가)본] 三匝ᄂᆞᄆᆞ 振錫而立ᄂᆞᄉᆞᄀᆞ 師曰ᄂᆞᄉᆞᆷ 夫沙門者ㄱ 具三千威儀八(43ㄱ1)萬細行ㅂ 大德ㄱ 自何方而來<u>ᄂᆞᄆᆞㄱᆞᆷ</u> 生大我慢ㅁ 覺ᄂᆞ 曰ᄂᆞᆷ 生死(43ㄱ2)事大ᄂᆞᄒᆞ 無常迅速ᄂᆞᄅᆞᄇᆞᄂᆞㅣ(43ㄱ3)

[諺解本] 三匝ᄒᆞ고 振錫而(중99ㄴ7)立ᄒᆞᆫ대 師曰ᄒᆞ샤더 夫沙門者ᄂᆞᆫ 具三千威儀와 (중99ㄴ8)八萬細行이어시니 大德은 自何方而來<u>완ᄃᆡ</u> 生大(중100ㄱ1)我慢고 覺이 曰호더 生死事大ᄒᆞ야 無常이 迅速(중100ㄱ2)이니이다

(10) ᄉᆞᄃᆞᄉᆞᄒᆞᄒᆞ

[영(가)본] 善知識ᄋᆞ 摩訶般若波羅蜜ᄉᆞᄋᆞ 最尊最上最第一ᄂᆞᆫ 無(14ㄴ10)住無往ᄉᆞᄋᆞ 亦無來ᄉᆞᄒᆞ 三世諸佛ᄂᆞᆫ 皆徒中出ᄉᆞᄃᆞᄉᆞᄒᆞᄒᆞ 當用大智(15ㄱ1)慧ᄉᆞᄋᆞ 打破五蘊煩惱塵勞ᄂᆞᄅᆞᄒᆞ 如此修行ᄉᆞᄋᆞᄀᆞ 定成佛道ᄉᆞᄅᆞ·(15ㄱ2)

[諺解本] 善知識(상59ㄱ6)아 摩訶般若波羅蜜은 最尊ᄒᆞ며 最上ᄒᆞ며 最第(상59ㄱ7)一이라 無住ᄒᆞ며 無往ᄒᆞ며 亦無來ᄒᆞ야 三世諸佛이 (상59ㄱ8)皆徒中出ᄒᆞ야 當用大智慧ᄒᆞ야 打破五蘊煩惱(상59ㄴ1)塵勞ᄒᆞᄂᆞ니 如此修行ᄒᆞ면 定成佛道ᄒᆞ야

(11) ᄉᆞᄃᆞᄉᆞᄀᆞ

[영(가)본] 弟子誦(34ㄱ9)法華ㅣ 經未解ᄂᆞᆷ 經義心常ᄉᆞᄋᆞ 有疑ᄉᆞᄋᆡᄒᆞ 和尙ㅣ **智慧廣大**ᄉᆞᄃᆞᄉᆞᄀᆞ 願(34ㄱ10)略說經中義理ᄉᆞ小西

[諺解本] 弟子ᄂᆞᆫ 誦法華經호ᄃᆡ 未解經義ᄒᆞ야(중57ㄱ2) 心常有疑ᄒᆞ노니 和尙이 **智慧廣大ᄒᆞ시니** 願略(중57ㄱ3) 說經中義理ᄒᆞ쇼셔

[諺解本 석] 弟:뎨子(중57ㄴ5)·ᄌᆞ·ᄂᆞᆫ 法·법華화經경·을 외·오ᄃᆡ 經경ㅅ·ᄠᅳ(중57ㄴ6)들 :아디 :몯·ᄒᆞ야 ᄆᆞᅀᆞ·매 샹·녜 疑의心심·을(중57ㄴ7) ·뒷노·니 和화尙·샹·이 **智·디慧:혜 넙·고 ·크시(중57ㄴ8)·니** 願:원ᄒᆞᆫ·ᄃᆞᆫ 經경中듕ㅅ 義:의理:리·를 :잀(중58ㄱ1)간 니ᄅᆞ·쇼셔

(12) ᄉᆞᄒᆞ

[영(가)본] 世人ㅣ(05ㄴ3) 生死事大ᄒᆞᆫᄃᆡ 汝等ㅣ **終日**ᄉᆞᄒᆞ 只求福田ᄒᆞᆨᆞᆨᆞᆨᆞ 不求出離生死(05ㄴ4)苦海ᄉᆞᄋᆞᄑᆡ 自性若迷ᄉᆞᄀᆞ 福何可求ᄒᆞᄒᆞ(05ㄴ5)

[諺解本 석] :사ᄅᆞ·미 :살·며 죽는 :이리 ·크니 너희·ᄃᆞᆯ히(상10ㄱ5) 저·므ᄃᆞ·록 오·직 福·복田뎐·을 求구ᄒᆞ·고 生(상10ㄱ6)싱死:ᄉᆞ苦·고海:히·예 여·희여 :나ᄆᆞᆯ 求구·티(상10ㄱ7) 아·니·ᄒᆞᄂᆞ·니 제 性:셩·을 ·ᄒᆞ다·가 모·ᄅᆞ면 福(상10ㄱ8) ·복·이 :엇·뎨 어·루 求:구ᄒᆞ·리오(상10ㄴ1)

4. 결론

이 글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간행된 구결 자료 가운데,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바 없는 ≪단경≫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자료의 이본들을 소개하고 이들 이본에 나타나는 문자 체계와 형태 서지 및 구결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상에서 논한 바를 간략히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단경≫의 이본들을 형태 서지 및 구결 자형 등으로 검토해 볼 때 이본들의 구결 기입 순서는 '영남대 (가)본', '영남대 (나)본'과 '1479년본', '1496년본', '1574년본' 순으로 추정된다.

둘째, 각 이본들에 사용된 구결 자형은 '영남대 (가)본'이 53개이고, '영남대 (나)본'은 62개, '1479년본'은 56개, '1496년본'은 52개, '1574년본' 54개이다.

셋째, 1880년 (가)본과 1880년 (나)본은 일본에서 간행된 것으로 자형은 1880년 (가)본이 43개이고 1880년 (나)본은 41개이다.

넷째, ≪단경≫ 이본들의 구결을 ≪단경≫ 언해본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8번 'ᄫᅡ'와 9번 'ᄀᆞ', 15번 'ᄇᆞ'가 동일한 음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으며, 11번 'ᄼᆞ'와 37번 'ᄭᅳᆫ'도 언해본과 비교해 보면 언해본에서 동일한 음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았다. 또한 17번의 'ㅣ'와 22번의 'ᄆᆞᆯ', 30번의 'ᄉᆞ', 31번의 'ᄉᆞᆫ' 역시 언해본과 비교해 보면 언해본에서

이들 자형이 동일한 음에 대응되며, 19번의 '大'와 31번의 '入' 역시 '영남대 (가)본'에 있어서만 그 공통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56번의 '一'와 57번의 '而', 58번의 '亦' 및 59번의 '立'도, 60번 '戶', 61번 '所' 및 62번 '小'도, 81번 '位', 82번 '爲', 83번 'ㅅ'도 언해본과 비교해 보면 모두 동일한 음 '위'에 대응될 수 있음을 알았다.

다섯째, 28번 '斗'와 35번 '厶', 44번 '广', 90번 '土', 91번 '下', 97번 '十' 등은 '영남대 (가)본'에서만 사용되었으며, 72번의 '我', 89번의 '他', 94번의 '屎' 등은 '영남대 (나)본'에서, 또 10번의 '女', 25번 '田', 33번 '弋', 43번 '曰', 75번 '勹', 96번 '爲'는 '1574년본'에만 사용되었음을 알았다.

여섯째, ≪단경≫ 고려본 '영남대 (가)본'의 총 결합유형 388개 가운데 'ㅈ(02ㄴ1), ㅈㅁ丶(08ㄱ7), ㅈㄱ丶(57ㄱ6), ㅈㅅㅈ(08ㄱ6), ㅈㅌㅁ(51ㄱ10), ㅁ丶(08ㄱ10)(08ㄱ8)(08ㄴ4), ㄴㅅㅣ士丁(36ㄱ5), ㅅㅈㅌㅣ(52ㄱ5), ㅅㅁㄱㅁ(43ㄱ2), ㅅㄴㅅㅂㅌ(15ㄱ1), ㅅㄴㅅ斗(34ㄱ10), ㅅ十(05ㄴ4)' 등의 쓰임이 흥미로웠다.

참고문헌

김동소(1999), 『한국어변천사』, 형설출판사.

김동소(2000), 「≪육조 법보 단경 언해≫ 하권 연구」, 『국어학』 35, 국어학회, 3-34.

김무림(2000), 「한자음(漢字音)」, 『새국어생활』 10-4, 국립국어연구원.

김문웅(1993), 「한글 구결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글』 219, 한글학회, 115-154.

김영욱(2000), 「14세기 국어의 시상과 서법-'-ᄂᆞ-, -더-, -리-, -거-, -니-'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제6집, 구결학회, 61-85.

남경란(1997), 「고려본 ≪능엄경≫의 음독 입겾과 'ㅣ'형 종결법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남경란(2003), 「<대방광불화엄경소> 입겾 연구」,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137-159.

남경란(2005), 『麗末鮮初 音讀 입겾(口訣)의 綜合的 考察』, 경인문화사.
남권희(1999), 「朝鮮中期부터 舊韓末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硏究」, 『書誌學硏究』 第18輯, 서지학회, 445-519.
남풍현(1990),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 硏究-楞嚴經 記入吐의 表記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남풍현(1997), 「借字 表記法과 그 資料」, 『국어사 연구』, 태학사.
박성종(1996), 「宋成文本 楞嚴經 解題」, 『口訣資料集三 朝鮮初期 楞嚴經』,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진호(1997), 「차자 표기 자료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백두현(1996), 「고려 시대 구결의 문자체계와 통시적 변천」, 『아시아 제민족의 문자』, 태학사.
안병희(1988), 『中世國語口訣의 硏究』, 일지사.
이승재(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이승재(1993),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지성사.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정재영(2000), 「선어말어미 '-內-', '-飛(ㅌ)-'와 '-臥(ㅏ)-'-고대국어 선어말어미 '-ᄂᆞ-'와 그 변화」, 『형태론』 통권3호, 박이정.
황선엽(1996), 「一簑文庫本 『大方廣圓覺略疎注經』」, 『口訣硏究』 1, 구결학회, 95-126.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8층 1804호〕
E-mail: dbstjf@yumail.ac.kr
접수일자: 2005. 12. 16.
게재결정: 2006. 01. 25.

≪六祖大師法寶壇經≫ 口訣 硏究

南京蘭

この論文は、高麗時代から朝鮮時代にかけて刊行された『六祖大師法寶壇經』を對象にしている。『六祖大師法寶壇經』は、口訣(입겾)に關する資料の中でも最初に紹介される資料である。

本論は、この『六祖大師法寶壇經』の異本を紹介しながら、これらの異本で現れている文字體系、形態書誌、口訣の特徵の考察が目的である。

『六祖大師法寶壇經』は、中國唐時代の僧侶慧能の一代記を記錄した佛敎經典である。上・下, あるいは、上卷・中卷・下卷になっている。『六祖法寶壇經』は、『法寶壇經』または『壇經』と略されて呼ばれている。本論で紹介する『六祖大師法寶壇經』(以下 壇經)は、三つで分類することができる。

まず、韓國の高麗時代から朝鮮時代までにかけて刊行された『壇經』中、音讀口訣がつけられた異本5種。二つ目は、日本で刊行された『壇經』の中、日本口訣が付けている異本の2種。最後に1496年(朝鮮王朝の燕山君の治世)に刊行された『壇經諺解』に付けられた、ハングル口訣が1種が存在する。この中、二つ目の韓國の高麗時代から朝鮮時代にかけて刊行された、『壇經』の異本5種は次のようである。

刊行年度が、高麗末と推定される木版本1種と、朝鮮初と推定される一種、成化15年(1479)に屛風庵から刊行された一種, 弘治9年(1496)に玉泉寺から刊行された一種, そして萬曆2年(1574)に 全羅道 廣濟院から重

刊された一種である。また、日本で刊行された『壇經』の中、日本口訣が付けられた異本の2種は、明治17年(1887)に山田大應が編輯し、上巻・下巻となっている1種と下巻だけの1種が殘されている。

この論文で口訣資料を『壇經』に限定したのは、今まで『壇經』の異本が、學界で一回も發表されたことがなかったことと『壇經』の異本が多いため、精密な比較分析が可能だからであった。また、この『壇經』は高麗末から朝鮮末にかけて、口訣の文字體系の變化を通時的にみせているのである。それに『壇經』は、1496年に刊行された、ハングルの諺解本まで存在し、音讀口訣とハングル 口訣との 比較・分析ができる特徴ももっているからだ。

以上、本論で論じたことを簡潔に整理してみると次のようである。

第一に,『壇經』の異本を 形態書誌、口訣字形などで檢討してみると、異本の口訣記入順序は、'嶺南大 (가)本', '嶺南大 (나)本'と '1479年本', '1496年本', '1574年本' 順として推定される。

第二に,各異本で使用された口訣字形は、'嶺南大 (가)本'が52個, '嶺南大 (나)本'は62個, '1479年本'は56個, '1496年本'は52個, '1574年本が53個である。

第三に, 1880年(가)本と1880年(나)本は、日本で刊行されたもので、字形は1880年(가)本が42個、1880年 (나)本は41個である。

第四に、『壇經』異本の口訣を『壇經』諺解本と比較した結果、8番 'ᄫ'と9番 'ᄀᆞ', 15番 'ᄇᆞ'は、同一の音に對應される場合がある。11番 'ᄋᆞ'と37番 'ᄊᆞ'も 諺解本と比較してみると、諺解本から 同一の 音が 對應されているのがわかる。また、17番の 'ㅣ'と 22番の 'ᄆᆞ', 30番の 'ᄒᆞ', 31番の 'ㅅ' も 諺解本と比較すると、諺解本からは、この字形が 同一な音に對應されることが發見される。, 19番の 'ᄉᆞ'と 31番の 'ㅅ'もまた、'嶺南大 (가)本'においてだけ、共通点を發見す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56番の 'ㅡ'と 57番の 'ᄆᆞ', 58番の 'ᄒᆞ' また、59番の 'ᄉᆞ'も, 60番 'ᄀᆞ', 61

番 '所'、62番 '小'も, 81番 '位', 82番 '爲', 83番 'ソ'も 諺解本と 比較してみれば、すべて 同一な 音'に 對應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

第五に, 28番 'ㅓ'と 35番 'ㅅ', 44番 'ㄱ', 90番 'ㅗ', 91番 'ㅜ', 97番 'ㅏ' 等は '嶺南大 (가)本'だけに使用された。72番の '我', 89番の '他', 94番の '屎' 等は '嶺南大 (나)本'から, また、10番の '女', 25番 '田', 33番 'ㅊ', 43番 '曰', 75番 'ㅋ', 96番 '是'は '1574年本'に限定されて使用されている。

第六に,『壇經』高麗本 '嶺南大 (가)本'の 總結合類型 388個の中、'ㅂ(02ㄴ1), ㅂㅁ丶(08ㄱ7), ㅂㄱ丶(57ㄱ6), ㅂㅅㅂ(08ㄱ6), ㅂㅌㅁ(51ㄱ10), ㅁ丶(08ㄱ10)(08ㄱ8)(08ㄴ4), ㅣㅅㅣㅗㅜ(36ㄱ5), ㅅㅂㅌㅣ(52ㄱ5), ㅅㅁㄱㅁ(43ㄱ2), ㅅㄴㅅㅌㅌ(15ㄱ1), ㅅㄴㅅㅓ(34ㄱ10), ㅅㅜ(05ㄴ4)' 等は興味深い使いであった。

*キーワード:『六祖大師法寶壇經』, 音讀口訣, 異本紹介, 文字體系, 形態書誌, 口訣の特徵